

**개업집**

**한정식전문점 '남촌'**

**네가지 코스의 전통 한정식 ... 3만~6만원**

고급 한정식전문점인 남촌이 지난해 12월 30일 죽왕면 가진리(구) 삼원퓨전회집 자리에 개업했다.

동해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에 위치한 남촌은 연면적 60평 규모에 1층과 2층으로 연회석 6개를 완비하고, 고급 한정식 이미지에 걸맞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통유리창으로 음식맛을 한층 더 가미시킨다.

남촌의 대표 민경호씨(56세)는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13년째 한정식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성지역이 마음에 들어 이곳에도 가게를 열게 됐다고 한다.

남촌에서는 전통한정식요리를 S, A, B, C 등의 코스로 나눠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S정식코스는 더덕구이, 전복 등이 나오고 A정식코스는 북어찜, 수삼 등이, B정식코스는 산낙지, 삼합, 홍어 등이, C정식코스는 사시미, 홍어찜, 제육, 송이버섯 등이 나오며 모든 코스요리에는 20여 가지의 맛깔난 음식들이 함께 제공된다. 한정식 코스요

리의 가격은 3만원부터 6만원까지다.

점심특선으로는 보쌈, 코다리, 버섯불고기, 된장찌개, 제육볶음, 모듬전, 생선구이 등과 10여가지 밑반찬이 제공되며 1만5천원부터 2만원까지이다.

이 밖에 꼬리찜, 생선찜, 보쌈, 가리비찜, 홍어찜, 문어숙회, 모듬전, 낙지볶음 등의 안주류가 있으며 가격은 4만원부터 2만5천원이다.

남촌에서는 오픈기념으로 고급 와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죽왕면 가진리에 문을 연 '남촌' 민경호 대표는 전통 한정식의 진수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남촌 민경호 대표는 "13년간 한정식전문점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고성지역주민들을위해 전통한정식의 진수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남촌에서는 상견례, 각종모임, 연회 등을 환영하며 예약시 아침 식사도 가능하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다. <전화 681-9572> 원광연 기자

**“강소농 육성으로 소득증대 기여”**

고성군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11일~2월 13일 까지

고성군은 강소농(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12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1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고성문화의 집 등에서 농업인 2천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안정 농산물 생산기술 및 소득증대에 영향을 주는 실용기술 16개 과목으로 운영된다.

군은 특히 녹색성장 지식농업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농업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기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다.

고품질쌀생산반은 1월12일부터 18일까지 금강농협, 거진읍사무소 외 3곳에서 열리며, 농촌체험관광반(1월19일), 블루베리반(1월26일), 전통발효음식반(1월27일), 발자물 콩·옥수수(1월30일), 감자·고구마반(1월31일), 산채류반(2월 1일), 고추반(2월 2일), 산머루반(2월 3일), 친환경인증반(2월 6일), 친환경우반(2월 7일), 양봉반(2월 8일), 톱밥표고반(2월 9일), 감 재배반(2월10일), 버직 파재배반(2월13일) 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680-3933)에 문의하면 된다.

원광연 기자

**2012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접수**

읍면사무소에 신청...개인 7천만원 · 단체 3억원 까지

연리 2%,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고성군은 농림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명품사업 및 농촌지도자로의 육성을 위해 1월2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2012년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고성군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등이다.

지원대상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등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

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개인이 1천만원부터 7천만원까지, 단체가 5천만원부터 3억원까지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2.0%,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접수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의 농림수산물을 중점지원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농정산림과(680-3374)나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원광연 기자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CJ제일제당(097950)**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임진년 흑룡의 해가 힘차게 떠올랐다. 흑룡이 물고 있는 것이 여의주라면 참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다소 떨어지는 분위기다. 글로벌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2012년 역시 힘든 한 해를 보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진행형인 유럽 재정 위기 문제를 비롯한 미국 경기 둔화, 중국 연착륙 가능성, 세계 각국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인한 정치적 변수 등 굵직한 이슈들이 즐비한 상태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유럽 재정 위기 문제일 것이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모두가 우려하는 흐름으로 유럽문제가 전개된다면 글로벌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상당 기간 동반 침체를 겪어야만 하기에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도 올해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은 자동차, 화학이 대세였다면 2012년은 IT의 독주 흐름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MART 시대 진입에 따른 IT의 다양한 신제품들은 소비자를 유혹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수관련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

필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탄탄한 내수 기반을 토대로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내수 관련주인 CJ제일제당(097950)을 소개하고자 한다.

삼성그룹의 모태라 할 수 있는 CJ제일제당은 CJ그룹의 자회사이다. 대표적인 품목은 설탕을 비롯한 밀가루, 조미식품 등 생필품이다. 원재료 대부분이 곡물이므로 국제 곡물가 흐름에 따라 마진율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한다. 우리가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바이오 사업 부문이다. 최근 항혈전 복합제인 '클로스원'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향후 관련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클로스원'은 처방의약품 1위인 '플라바스'와 '아스피린'을 하나의 제형으로 만든 복합제다. 연간 1000억 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CJ제일제당은 '클로스원' 제품 허가로 인해 복합제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주가 흐름도 안정적인 우상향 패턴을 이어갈 것이라 확신한다. 250,00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조정마다 분할 매수를 권한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